

예언을 성취시키는 예수님의 탄생

유대인의 왕을 찾는 동방 박사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2:1)

1장을 통해서 살펴본 예수님은 헤롯 왕 때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헤롯은 키가 120cm 조금 넘는 정도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추진한 모든 일은 규모가 매우 컸습니다. 그것은 자격지심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바윗돌로 거대한 요새를 지었습니다. 예루살렘 서쪽 벽 아래 있는 돌들은 헤롯이 성전을 짓기 전 성전대지(Temple mount)를 받쳐주는 축대로 쌓은 것이라고 전해오는데 돌 하나의 크기가 자그마치 가로 3m, 세로 3m, 길이가 약 14m, 무게는 약 170톤이나 되었습니다. 헤롯은 이 거대한 바위를 옮겨 건축에 사용했습니다. 건축의 천재였던 그는 헤롯 궁전과 마사다 요새 뿐만 아니라 아직 발굴되지 않은 알렉산더 궁전과 예루살렘 큰 성전, 그리고 성전대지(Temple mount)와 가이사라 등을 비롯한 엄청난 규모의 건설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또한 베들레헴 가까이에 있는 연못도 호수로 만들었고 예루살렘의 급수시설도 만들었습니다. 헤롯의 건축 계획들은 오늘날에도 놀랄만큼 큰 규모입니다.

참으로 그는 건축 방면에서 천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끔찍스럽게도 잔인한 편집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과 아내 미리암이 반역의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망상으로 모두 죽여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다시 아내 미리암이 그리워지자 그녀를 위해 거대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의 이러한 광적인 행동 때문에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 그의 돼지가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올 정도였습니다.

거대한 요새를 건설하여 그 속에 은신처를 둔 것도 그러한 불안정한 심리상태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이 죽었을 때 슬퍼하지 않을 것이 염려되어 “내가 죽으면 모든 고위급 신하들을 처형하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국민들이 애도해 주기를 바랬지만 자신도 알다시피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국민들이 슬퍼할 리가 없었으므로 당시 덕망을 쌓았던 중신들을 한꺼번에 죽임으로써 그들의 죽음을 인해서라도 국민들로 애도하게 하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다행히 그가 죽었을 때 신하들은 이성을 되찾아 그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의 명령을 수행하겠느냐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슬퍼하는 사람도 없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2:2)

이러한 헤롯이 왕이었던 당시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하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이 항상 불안 속에 사는 헤롯 왕에게 어떤 충격을 주었겠는지 충분히 상상하고도 남습니다. 그들은 계속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말했습니다. 헤롯은 이 말을 듣고 심각하게 고민했을 것입니다.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질문을 했다기보다는 다그쳐 물었을 것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다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2:4-6)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가서 5:2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로 선포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메시아의 탄생지로 베들레헴이 선택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2:7-8)

나중에 나오지만, 헤롯이 아기를 찾는 이유라고 밝힌 경배라는 것은 아연실색할 집단살인극이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2:9)

이 별을 자연적 현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보았던 별은 동에서 서로 향하고 있었으나 다시 본 별은 동쪽으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에 있습니다. 또 9월에 그 별이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 섰다고 했는데 이 말은 그 별이 갓난 아기가 누워 있는 구유 위에 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날 크리스마스 연극이나 카드에 전형적으로 보여지듯이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방문하는 동방 박사들이 낙타에서 내려 아기 예수께 예물을 바치는 장면은 사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더 극적이어서 크리스마스 행사의 절정을 이같이 장식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동방박사들이 도착할 때쯤 요셉과 마리아는 벌써 마구간에서 떠나 베들레헴의 한 집에 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1~2년 후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쯤 조금씩 걷고 몇 마디 말을 하기 시작하는 어린 아이였을 것입니다. 박사들은 마구간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느 집에 들어가 마리아와 함께 있는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2:11)

동방박사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보배함을 열어 황금(이것은 왕을 의미합니다)과 유향(이것은 제사장직을 상징합니다)과 몰약(이것은 매장을 위한 향료입니다)을 어린 예수께 드렸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매장할 때 쓰는 향료를 예물로 드렸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 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2:12)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로 인해 박사들은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요셉은 실로 여전히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간 예수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2:13-15)

다시 한 번 마태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모든 순간순간들이 모두 다 선지자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예언이 실현되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헬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포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2:16)

헤롯은 베들레헬과 그 지경에 있는 두 살 아래의 어린 사내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동방박사에게 별이 처음 나타났던 때로부터 약 1~2년 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이 사실로부터 동방박사들이 예수께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구유에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헤롯의 어린 아이 학살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을 성취시킨 것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2:17-18)

라헬은 베들레헬 근방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으며, 그 무덤이 베들레헬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미 죽은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 운다는 것은 헤롯에 의해 자식을 잃은 베들레헬 지역의 어머니들의 슬픔을 예언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 됄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2:19-22)

갈릴리는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그녀가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성장했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리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2:23)